

## 대통령 과학 장학생 장학증서 친수 및 격려다과회

한국의 승부는 과학기술을 육성하는 데서부터 출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드리고 싶은 첫마디는 축하합니다. 그리고 축하 얘기를 해야겠는데, 축하 얘기 전에 부탁이 하나 있습니다. 조금 전에 들어오면서 줄을 지어 악수했습니다. 느낌이 어땠는지 모르겠습니다. 모임 끝나고 나면 접견이란 이유로 악수하는데 할 때마다 고민입니다. 오신 분들이 손님이 원해서 하는 일인지, 대통령 행사에서 항상 하는 일이니까 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안 하면 안 되나 했더니 의전실에서 그렇다고 해서 안 하기도 하다가 그 뒤에 해야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께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런 것 하는 게 좋겠는지, 줄서서 하는 것은 안 하는 게 좋겠는지 말입니다. 줄서서 악수하니까 쑥스럽습니다. 청와대 홈페이지에 의견을 올려주십시오. 지금 이 얘기 계속하면 판 깨집니다. 판 깨진다고 이렇게 말하면 괜찮은지 모르겠습니다.

어제 일찍 퇴근해서 아내와 함께 청와대 안뜰을 잠시 걸었는데, 그 때 문득 보석 같은 하늘이라고 아내가 말했습니다. 오늘 보니까 어제처럼 하늘이 보석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만나면서 여러분에게 받는 느낌이 그렇게 느껴집니다. 보석 같은 사람들 만났습니다. 여러분은 보석 같은 사람들입니다. 정말 여러분께도 축하할 일이고 저도 매우 기쁜 일입니다.

니다.

**우리의 역량을 나타내는 경쟁력을 만들어 가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이 자리에 심사하느라 수고하신 분 함께 계신데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역시 누가 뭐라 해도 우리는 경쟁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개인과 개인, 국가와 국가 사이에 경쟁합니다. 815 식이 올 때마다 ‘왜 그렇게 됐을까 또 그렇게 되지는 않을까, 다시 그러지 않기 위해 뭘 해야 할까’에 대해 생각해봅니다. 여러 방안들이 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여러 가지 중에서 가장 밑바탕 이루는 것은 결국 우리가 역량이 있어야겠다는 것입니다. 역량이 없다면 어떤 일도 성공해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민족자주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자주국방을 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역량 없이 민족자주가, 자주국방이 되겠습니까. 역량 없이 동북아 중심이 되겠습니까, 정신적 역량도 중요하지만, 또한 과학기술분야, 이것이 떠받치고 있는 경제 모든 현실적 영역에서의 역량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날 흔히 얘기하는 경쟁력이 역량이라는 단어를 핵심적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어떤 기업인이 해준 얘기가 매우 인상적입니다. 경영혁신을 해서 비용을 절감해서 경쟁력을 올리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결정적 요소는 아닙니다, 결국 살아남는 기업은 기술력입니다. 경영에서 낭비적 요소 있고, 경영합리화를 하더라도 확실한 기술을, 경쟁력 확실히 갖고 있는 기업은 견디지 못합니다. 한국의 승부는 과학기술을 육성하는 데서부터 출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선거 때는 이 얘기가 그렇게 인기가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내놓지 않았습니다. 왜냐 표에는 그게 1번 순위가 아니기 때문에 당선되고 나서 그 다음날부터 과학기술 전략을 국가전략의 1번으로 말해왔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저는 말하고 있지만 말로 되는 게 아닙니

다. 여러분이 해내줘야 합니다. 이제 여러분의 몫입니다. 여러분이 잘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어찌 지원하는 게 좋을지는 여러분도 잘 알겠지만 이 자리 계신 선생님들도 잘 알 것입니다. 선생님들과 의논해서 지원하겠습니다. 이 제도는 내가 만든 게 아닙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이끌었던 국민의 정부에서 만든 제도입니다. 나는 미리 이 같은 제도 만들어준 전 정부에 대해 매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상을 받으면서도 이 상 준비해주신 정부가 전 정부라는 것을 기억해주시고, 전 정부에 대해서도 공로를 인정해달라는 뜻으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전공분야는 물론이지만 다양한 영역의 취미와 폭넓은 사고를 가진 과학자가 되기 바랍니다**

내가 빛이 죽겠으나 나는 따로 하겠습니다. 따로 할 일이 많기 때문에 굳이 전 정부가 했던 공을 가로채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와 계신 교장선생님 여러분 감사합니다. 본인보다 선생님 여러분이 더 기쁠 것입니다. 내가 중학교 2학년 때 경남에서 35명 뽑는 장학생 시험에 합격한 일이 있습니다. 나는 기분 좋았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어쩔 줄 몰라 하십니다. 좀 신경됩니다. 합격은 내가 했는데 선생님이 광내고 어쩔 줄 몰라 해 그랬습니다. 선생님의 보람이라는 것은 제자의 성공입니다. 여러분은 장학금도 받겠지만, 부모님께 효성스런 아들딸이 된 것입니다. 선생님께 아주 훌륭한 제자가 된 것입니다.

웃차림이나 표정으로 봐서 공부 말고 아무 것도 모를 것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쁘고 칼라머리도 있고, 곱슬머리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그 여유가 더 귀엽고 그렇습니다. 나는 요즘 틈틈이 보는 책이 ‘파인만의 물리 6가지 이야기’ 입니다. 거짓말 같습니까? 아침에도 봤습니다. 여름에는 ‘아인슈타인의 사상’ 을 읽어볼 생각입니다. 자연과학자로서의 아인슈

타인이 사회과학 영역인 인간윤리와 사회가치 등에 대해 얼마나 깊이 고민했는지 알고 싶어서 읽어보려 합니다. 얼마 전 어느 신문에서 소개한 책인데, 미처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이번 휴가 때 읽어보려고 합니다. 공부하는 전공분야는 물론이지만 다양한 영역의 취미와 폭넓은 사고를 가진 과학자가 되기 바랍니다. 본시 프로그램은 30분인데 많이 깎아준 겁니다. 이럴 때 박수 한 번 쳐 주십시오. 점심 맛있게 드시고, 듣고 말씀드려야 할 일 있으면 이따가 하겠습니다.

**형평 원칙과 신뢰, 투명과 공정**이 국정 원칙입니다. 이공계의 병역 문제에 대한 고민은 **형평성의 문제가 제고되어야** 하므로 연구해보겠습니다

마이크가 있는데 가서 하는 게 맞는지 여기(자리)에서 하는 게 맞는지 헛갈립니다. 의전 팀에서 여기서 해도 된다고 합니다. 마음이 놓입니다. 어른스럽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청소년을 보면 창의력 상상력도 고갈돼버리고 경쟁에 시달려서 사람들이 감성도 각박하게 메말라버린 젊은이를 생각하게 됩니다.

세 명의 장학생이 말했는데, 멀쩡해서 참 다행스럽습니다. 언젠가 교육문제에 관해 말할 기회가 있었는데 모두 개탄합니다. 대학을 가는 사람, 안가는 사람 보면 대개 멀쩡합니다. 한국에서 교육받은 젊은이들의 경쟁력이 어떻게 될까하고 생각했는데 제법 잘하기 때문에 수출도 잘하는 것 같습니다. 대단히 우수하고 경쟁력이 있습니다. 집단으로 평가하면 조금도 뒤떨어지지 않을 것 같은 생각입니다.

교육에 문제가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불안감에 떨 필요는 없습니다. 아이들은 우수해서 나쁜 환경 속에서 잘 해내고 있다고 품을 쳤습니다. 세 명이 말하는 것보고, 전에 내가 말한 것이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든든합니다. 그러나 또 금방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

는 특히 우수한 사람들만 있다고 말입니다.

###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가 수용도가 높아지고 자발적 참여가 가능해

병역문제에 대해 말했습니다. 이걸 아마 이공계 학교, 산업체에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금 있는 제도를 좀 더 면밀히 연구해보겠습니다. 국방부가 할 일이지만, 답답한 사람이 우물판다고 과학기술부 산업자원부가 연구해야 합니다. 다만 큰 문제가 있는데 형평의 요구입니다. 그것은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사회가 어떤 목표를 향해서 함께 할 수 있는 근거가 공동체의식에 뿌리를 두고 있는 중요한 게 형평의 요구입니다. 역할이 다르고 역량이 다르고 다른 대우가 필요한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승복하게 하는 명확한 근거가 무엇이냐고 차별적 대우 명확한 근거를 제시할 때, 승복하는 문화가 있을 때 특례 만들 수 있습니다. 필요하다고 무조건 만들 수 있는 게 아니고 차별적 대우를 정당하게 할 수 있는 지표를 만들고, 그 사회에서 가장 효율적인 어떤 자원의 분배를 할 수 있는 토양을 마련해야 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형평 원칙과 신뢰, 투명과 공정을 국정 원리로 내세웠습니다. 공정을 왜 내세웠냐 하면 투명한 때, 결과도 공정하데 돌아왔다는 믿음이 있을 때 사회적 수용도가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정치하는 사람은 공정성을 더 높이는 제도를 끊임없이 발전시켜 나가고, 신뢰를 통해 효율적인 사회운영이 가능하도록 뒷받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정 학생이 나노테크에 대해 얘기했습니다. 화학하면 반갑게 느끼는 점이 있습니다. 큰 아들에게 화학하면 돈 많이 번다고 꼬셨는데, 1학년 마치고 나더니 군대로 도망가고 결국 법과로 갔습니다. 지금은 컴퓨터 공학 쪽의 일을 하고 있지만, 저는 아이를 이공계 쪽의 교육을 시키려고 노력했습니다. 재능이 안 되나 봅니다. 지금은 컴퓨터도 이공계로 볼 수 있을지 모르지만 말입니다.

제가 아들을 이공계로 보내려고 노력했던 이유는 일에 대한 보람 때문입니다. 변호사를 하면 영향력이 있어서 변호사가 국회의원 되는 비율이 화학 교수보다 높습니다.

하지만 변호사는 변론을 열심히 했는데, 마지막에 판결을 판사가 합니다. 그게 불만이었습니다. 판결은 하느님이 해주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최선을 다한 노력에 대해 판단을 의사나 과학자가 한 노력에 대해서는 하느님이 평가해주는 것 같은데, 변호사가 한 노력에 대해서는 판사가 판결합니다. 좀처럼 승복할 수 없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직접 자연의 섭리나 하느님이 하는 일을 대하는 것이냐, 인간사회의 게임의 원리 같은 것을 대하는 것이냐의 문제입니다. 그러한 생각을 해봤습니다.

인간사회에서 게임의 원리, 과학하면서 사회적 지위나 경제적 보상을 무시할 수 없지만, 한순간 느끼는 보람이라는 것은 과학 쪽이 높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순간 판결 받을 때의 좌절감, 물론 과학도 좌절 있겠지만, 어쨌든 과학은 하느님이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회에서의 게임에서도 그랬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공계 호감 갖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해결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사회를 이끌고 가는 힘이 있습니다. 권력이라고 하는데, 과거에는 정치권력만 있었습니다. 사회 발전될수록 권력은 분산되고 정보를 가진 사람이 정보를 가지고 좌지우지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권력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